

“‘기생충’ 여배우들+이미경, 영화계 영향력 있는 여성”



▲ 영화 '기생충' 출연 여배우들(왼쪽 사진)과 이미경 CJ 부회장(오른쪽 사진)

영화 '기생충' 출연 여배우들과 이미경 CJ 부회장이 미국 매체가 선정한 영화계의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됐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지난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최근 영화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 리스트에는 '기생충'의 여성들이라는 이름으로 조여정, 장혜진, 이정은, 박소담, 정지소 등 출연 여배우들이 올랐다.

버라이어티는 “이들은 오스카상을 받지 못했지만, SAG 어워즈에서 앙상블상을 받았고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을 함께 축하하며 시상식 레이스를 통해 교훈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미경 CJ 부회장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 25년 전 남동생과 함께 CJ의 미디어 부문을 설립할 때만 해도 한국 관객들은 영화에 등을 돌렸고 영화 제작자들은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사반세기 후 CJ는 한국에서 가장 큰 영화 재벌이 됐고 (투자한)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

로는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는 승리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중에는 김민영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 VP(Vice President)도 '넷플릭스의 여성들'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배우 아멜 에벨, 아나 드 아르마스, 셀마 헤이악, '조커'의 음악감독 힐터 구드나도티르 등이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됐다.

청하, 미국 진출 위해 미국 대형 에이전시와 계약

가수 청하가 미국의 대형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미국에 진출한다.

소속사 MNH엔터테인먼트는 10일 청하가 최근 글로벌 3대 에이전시로 꼽히는 '아이씨엠 파트너스' (ICM Partners·이하 아이씨엠)와 계약하고 본격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이씨엠 존 플리터 부사장은 “청하는 한국 여자 솔로 가수 중 최정상에 위치한 아티스트”라면서 “실력과 스타성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유년 시절 미국에서 생활해 언어 문제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 K팝 가수를 넘어 팝 가수로서의 가능성 역시 유심히 보고 있고, 할리우드에서 연기자로 활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청하는 지난해 아이씨엠의 아시아 독점 파트너사인 캠프 글로벌(KAMP Global)이 주최한 음악 축제 '캠프 싱가포르' 무대에 올라 아이씨엠에 눈도장을 찍었다. 아이씨엠은 LA에 본사를 두고 뉴욕·런던 등지에 지사가 있는 대형 미디어 에이전시다. 음악 산업, 방송 프로그램, 영화, 출판, 공연, 뉴미디어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에서 사업을 펼친다.

비윤세, 니키 미나즈, 칼리드, 사무엘 잭슨, 올랜도 블룸, 우마 서먼, 메간 폭스, 존 시나 등 유명 가수 및 배우들과 에이전트 계약을 하고 함께 일한다.

“브래드 피트, 연애 필요성 느끼지 않는다”

배우 브래드 피트(왼쪽)가 26세 연하 동료 배우인 엘리야 쇼켓(오른쪽)과 열애설이 불거진 가운데 사실이 아니라는 설이 제기됐다.



“두 사람은 친구일 뿐 낭만적인 사이가 아니다. 엘리야 쇼켓은 브래드 피트가 어울리는 예술가 친구 중 한 명”이라고 부인했다.

연예매체 TMZ는 10일 브래드 피트가 2016년 안젤리나 졸리와 이혼 소송을 시작한 이후 아무와도 데이트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피트 측근의 말을 빌려 “브래드 피트가 연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는 다른 곳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브래드 피트는 제니퍼 애니스톤과 지난 2000년 결혼했고, 결혼 5년 만인 2005년 이혼했다. 이후 그는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를 통해 인연을 맺은 안젤리나 졸리와 연인으로 발전했고 지난 2014년 결혼했지만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최근 브래드 피트는 26살의 연하 배우 엘리야 쇼켓과 LA에서 열린 콘서트에 함께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며 열애설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래퍼 카니에 웨스트의 콘서트와 미술 전시회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며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열애설 당시 브래드 피트 측 관계자

브래드 피트가 '돌싱'이 된 이후 그의 새로운 연애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그는 연초 시상식 시즌 전 부인인 제니퍼 애니스톤과의 다정한 모습을 보여 제니퍼 애니스톤과의 재결합에 대한 기대 섞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1307호 숫자퍼즐 정답

8	2	3	1	4	5	9	6	7
4	5	9	3	6	7	1	8	2
6	7	1	8	2	9	3	4	5
9	6	7	2	1	8	4	5	3
1	8	5	9	3	4	2	7	6
2	3	4	5	7	6	8	9	1
3	9	6	4	5	2	7	1	8
5	4	2	7	8	1	6	3	9
7	1	8	6	9	3	5	2	4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각자 고유하게 타고나는 본분(本分)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면서 저마다 고유하게 타고나는 본분(本分)이 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남다르게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명심보감(明心寶鑑)에 이르기를 “천불생 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하고, 지부장무명지초(地不長無名之草)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을 풀이하면 “하늘은 녹(福)이 없는 사람을 낳지 아니하고 땅은 이름없는 풀을 키우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시말해 이 세상에서 복(福)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고,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물건은 없다는 뜻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맹인(盲人) 천재가수 스티비 원더는 빌보드 차트 10위권 안에 든 히트곡이 30곡이 넘고, 총 21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또 로큰롤 명예의 전당과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간 인물이다. 그는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盲人)이지만 어려서부터 각종 악기를 자유자재로 연주했다고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영혼이 깃든 그의 목소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점이다. 만약에 그가 시력을 잃지 않았다면 그의 목소리에 그만큼의 깊은 영혼의 무게가 실리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莊子)가 이르기를 “물오리는 비록 다리가 짧지만 그것을 늘리면 괴로워하고, 학은 다리가 길지만 그것을 잘라 버리면 슬퍼한다. 그러므로 본래부터 긴 것을 잘라도 안 된다. 태어난 그대로 만족하라 그것이 본성(本姓)이요,

자연(自然)이다. 세상에는 단지 하나의 성공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자신이 선택한 방식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시말해 가장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의 참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다. 길어도 여분으로 여기지 않으며, 짧아도 부족하다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각자가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이다.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누구든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예약 필수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